

# 삼탈(三奪)과 농기구

글·나경수 편집위원장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교육홍보부장

조선 정조22년(1798년)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농사를 가르치게 하는 세가지 요인을 신랄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그가 왕께 올린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 첫째 경우(耕牛)가 없어 남의 소를 빌어 일을 함으로써 농사철을 잃는 일이다. 또 농촌자제들의 방랑(放浪)으로 농사의 뒷손질이 소홀하여 결국에 가서는 농사를 망치는 일이 그 둘째다. 그리고 셋째는 특히 도읍주변의 농민들이 장사나 품팔이 등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농사에 전념(專念)하지 않는 일 등을 들었다. 이것이 소위 삼탈(三奪)이다. 탈(奪)자는 “빼앗다, 잃다”라는 뜻이다.

오늘날 농촌의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이때문에 농촌이나 도시가 다같이 문제를 안고 있다. 요즘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농현상이 심해 농촌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비참한 농촌의 공동화(空洞化: cavitation)현상이다.

예로부터 농사는 만사의 근본으로 여겨왔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기초이고 농민은 민족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 즉 농본주의(農本主義)는 봉건시대에는 봉건사회의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고취되었다. 후진자본

주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자 정치적으로 농민을 체제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중의 나치즘의 농촌운동은 그 좋은 예의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농민이 농업에서 이탈하는 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로 이러한 이농(離農)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농은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연유한, 다른 산업의 노동력에 대한 고용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농형태에는 대개 2가지로 대별되는데 전가족이농과 단신(單身)이농이 있다.

전가족이농은 가구원 전원이 농업을 이탈하는 것으로, 그 숫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하여 단신이농은 농가의 가구원이 단신으로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농업을 여기에는 이탈함과 함께 동시에 농가도 이탈하는 것과 농업은 이탈하여도 농가의 가구원으로 잔류하는 것이 있다. 형태상의 구별에서 앞의 것을 전출(轉出) 또는 이촌유출(離村流出)이라 하고, 뒤의 것을 재가(在家) 또는 통근유출(通勤流出)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신이농이 대부분이며, 재가이농(在家離農)의 통근근로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을 논하고, 그 개혁책으로 한전법(限田法)을 제시한 연암의 <과농소초>는 지금 이 시대까지 꿰뚫어 내다 본 불멸의 권농서(勸農書)이다. 한전법(限田法)은 원래는 고대 중국의 토지소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다. 역대왕조의 재정이 자작농민의 납세를 기초로 했으므로 대토지사유의 발전은 가끔 재정상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일찍이 한무제(漢武帝) 때 동중서(董仲舒)가 명전(名田)의 제한을 주장했으며, 한말인 BC 7년에는 한전법이 실시되었다. 제후와 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소유량을 제한하고, 작위(爵位)에 따라 노예의 소유수도 제한하려는 것이었으나, 반대가 많아 실효는 못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답의 개인소유를 한정하려는 주장이 있었으니, 이것 역시 한전설(限田說)이다.

그후에도 후한에서 위진(魏晉)에 걸쳐 필요성이 역설되었으나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고 당말(唐末)의 양세법(兩稅法)은 한전(限田)의 불가능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송나라에서도 한전법이 행해졌으나, 토지소유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면역권이 적용되는 관호(官戶)의 소유지에 면역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전기의 법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는 법령이었다.

1905년에 중국의 손문(孫文)이 제창한, 중국혁명의 기본이념이 삼민주의(三民主義)이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목표로 하여 사회주의를 역설한 민생주의의 3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농토는 농민에게(land to the tiller)>라는 구호의 지권(地權)의 평균을 강령으로 한 민생주의(民生主

義)도 그 뿌리는 중국에는 이 한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연암의 <삼탈>은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지금에 와서도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농문제도 그렇고 또한 농우문제도 역시 그렇다. 농사일에 부리는 소(farming cattle)는 지금에 와서는 농용트랙터(農用 tractor), 농기구(農器具)로 바뀌었을 뿐이다.

농작업(農作業)에 사용되는 간단한 구조의 인력용 및 축력용(畜力用)의 기구는 농사일에 대단히 중요하다. 손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것이 많고 농업기계에 비하여 체력을 요한다. 농업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기구도 차츰 기계화 되어가고 있으나, 쟁이·낫·삽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기구나 그밖에 특수한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구는 현재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용도에 따라 쟁기·쇠스랑·나래·괭이 같은 경운용구(耕耘用具), 씨래나 곱방매 같은 파쇄용구, 삼태기·바구니·오줌통·오줌바가지 같은 중경(中耕: 골갈이) 및 제초용구, 용두레나 것두레 같은 관개용구, 수확용구인 낫, 키·체·도리개 같은 조제용구 그리고 지게·길마명에 같은 운반용구 등으로 나눈다. 이중에서 너무 전근대적인 것은 폐지하고, 나머지도 될 수 있는 한 전동화(電動化)하여, 쓰기에 편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전기로 움직이거나, 전력(電力)을 동력(動力)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동(電動)이라 하는데, 현대 전기와 기계 문명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전기용품의 유엔환경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도 경작기구나 하여 선진화 된 세칙을 내어 놓고 있다.